

# 전남 갯벌 칠게가 사라진다

## 오염·불법 남획·무분별 갯벌 체험 영향...개체수 급감

### 값 2배 폭등, 미끼 사용 낙지값도 올라



전남 갯벌에 칠게가 사라지고 있다. 오염과 불법 남획, 무분별한 갯벌 체험 등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

습성을 이용한 것이다. 칠게잡이는 지역민이 맨손으로 잡는 것은 관행이었으나 인공적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없이 타 지역 주민이 잡거나 불법 도구를 이용해 갯벌을 갈아엎는 등 2년 이하 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각급 학교·기관·단체별로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갯벌체험도 개체 감소에 한 몫하고 있다. 전남지역의 경우 무안군 현경면 월두마을과 해제면 송계마을 등의 갯벌에서 연간 200여 회 이상의 갯벌체험 행사가 열리고 있다.

하지만 국립수산물관리원 서해수산연구소 측은 '일시적인' 갯벌 체험 행사 후 칠게 등 저서동물(그물코 0.5~1mm인 체에 걸리는 조개류와 갑각류)의 서식밀도와 개체 수가 20~25% 감소(전북 부안 갯벌 기준)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연간 수십 여만 명이 몰려드는 순천만 갯벌도 관광객들이 낚시대와 그물을 이용해, 칠게를 잡고 있으나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개체 수가 줄어들면서 미끼용 값이 급등, 종전 한 점(1점=20마리) 당 7만원이던 낚시 가격이 최근 10만원대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 소비자가 가격도 200g 한 점시에 5천원 대로 전년보다 2배 이상 폭등했다.

'녹색연합' 구대수 연안생태부장은 "칠게는 낚시·문어 등 연체류와 도요새 등 칠새의 먹이가 되는 먹이사슬의 중심에 있다"며 "갯벌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칠게가 없으면 갯벌도 황폐화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남지역 갯벌은 지난 87년 1천179.1km였으나, 2005년 1천17.4km로 13.7%가 감소했다. /목포=이상휴 기자 lsh@



▲칠게=수컷의 갑각 길이는 약 25.5mm, 너비는 약 39.5mm이다. 갯벌에 타원형 구멍을 파고 대규모 집단을 이루어 산다. 간조 때 구멍에서 나와 갯벌에서 자라는 규조류를 즐겨먹는다. 시각이 예민하여 사람이 지나가면 약 20m 밖에서도 재빨리 구멍 속으로 들어간다. 5~8월에 알을 품는다.



강진군 신전면 벌정리 앞 갯벌에 설치된 칠게잡이 불법 어구. 길이 44m의 PVC 플라스틱 원통 파이프를 가로로 자른 뒤 갯벌 표면에 묻어 칠게가 통(사진 아래) 안으로 들어오도록 설치했다. /목포=이상휴 기자 lsh@kwangju.co.kr



강진군 신전면 벌정리 앞 갯벌에 설치된 칠게잡이 불법 어구. 길이 44m의 PVC 플라스틱 원통 파이프를 가로로 자른 뒤 갯벌 표면에 묻어 칠게가 통(사진 아래) 안으로 들어오도록 설치했다. /목포=이상휴 기자 lsh@kwangju.co.kr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자기 부담금 9억원을 제출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민 사실을 알고도 국고 보조금 12억3천1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고 보조사업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우선 지출된 뒤 국고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데도 유씨 등은 이를 무시한 채 12억원이 넘는 국고를 일방적으로 지원한 혐의가 있어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필요할 경우 위압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평평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려는 3,813 최대단지!**  
| 명품주택 호수공원 조망 최고 단지 |  
수원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 367-9000

# 책도둑 잡고 보니...

## 60대 전직 교육공무원 슬쩍하다 '덜미' 광주·전남 서점 年 수익원 피해 '비상'

지난 29일 밤 10시15분께 광주 시 동구 금남로 총장서점 1층 매장. 짙은 남색 정장차림의 60대가 책 한 권을 '슬쩍' 했다. 노신사가 흘린 책은 스티븐 코비(Stephen Covey)가 쓴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김영사·1만4천원).

매장 직원에게 들켜 광주 동부경찰에 입건된 '책 도둑'은 놀랍게도 전직 고위 교육공무원 L(64)씨였다. L씨는 "책을 고르던 중 제목이 맘에 들어 순간적으로 옷 속에 감춰다"고 말했으나, 정작 그에게 '오늘 내 인생 최악의 날'이 됐다.

서점과 도서관이 '책 도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주 삼복서점의 경우 올해 200여 권을 훔친 A(여·31)씨를 CCTV로 붙잡아 300만원을 변상조치했다. 지난해엔 2명을 경찰에 넘겼다. 총장서점에서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박모(26)씨가 지난

3월 11권의 책을 훔쳐려다 발각됐다. 총장서점의 경우 하루 평균 20~30권을 도난당하고, 삼복서점도 1~2권을 도둑맞고 있다. 도난당한 책값은 한해 1억~4억원으로 매출의 1.5~3%나 된다.

피해가 커지자 총장서점은 지난 2002년 1천여만원을 들여 CCTV 12대를 설치하고 고가(高價) 서적인 도난방지센서(TAG)를 부착했다. 삼복서점도 대당 200만원하는 고성능 CCTV 7대를 달았다.

전남대·조선대학교 등 대학 도서관도 1주일에 1~3명이 플래 책을 가져가려다 경비장치가 울리는 바람에 적발되고 있다. 조선대 측은 4천만~6천만원의 도난 방지 시스템을 설치, 개당 150원하는 책 갈피용 감지센서를 연간 5만개(750만원)씩 구입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니원침



# 나주 기름값 싸다 했더니...

## 면세유 60만 l 불법 유통 적발

### 주유소업자 등 5명 영장

나주지역 기름값이 싼 이유가 있었다. 운전자들 사이에선 광주·전남에서 나주에 있는 주유소 휘발유가 가장 값이 싸며, 그 이유는 면세유가 대량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30일 현재 광주지역 휘발유 값은 l 당 1천530~1천570원이나, 나주의 경우 1천480~1천499원이었다.

목포해양경찰은 30일 이 같은 소문의 진원을 추적, 농어업용 면세유 수십만 l를 빼돌린 나주 O주유소 배모(36)·K주유소 나모(47)씨 등 업자 2명과 이들에게 면세유를 상습적으로 팔아온 반모(43·나주시 남평면)씨 등 어민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또 면세유를 넘긴 박모(33·목포시 용당동)씨 등 농어민 19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배씨 등 업자 2명은 지난 2004년 3월부터 60만4천 l의 면세유를 빼돌려 면세금액보다 2배 높은 가격에 일반민들에게 판매, 7억8천

여민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반씨는 주유소와 짜고 어민 10여 명으로부터 면세유 구입권을 모아 지난 4월 말까지 40만 l를 팔아 3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 전남도 생체협 간부

### 만취 사고...2명 사상

여수경찰은 30일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이던 김모(50)씨 등 2명을 치어 이씨를 숨지게 하고, 김모(35)씨를 다치게 한 혐의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 '사죄의 글' 남기고 310만원 출 처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수백만원을 훔쳐 달아나면서 사죄의 글을 남긴 종업원이 주인 신고로 탈락.

○30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북구 운암동 L모텔 종업원 김모(33·광주시 북구 운암동)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카운터에서 현금 310여만원을 훔친 후 자취를 감췄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주인(63)에게 '어머니 병환비가 급해서 돈을 가져갑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쓴 포스트잇(post-it)을 붙였으나, 취업 당시 제출했던 이력서는 갖고 갔다. /이종원기자 golee@kwangju.co.kr

# 서류 허위 알고도 국고 12억 지급 나주시청 간부 등 4명 영장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류혁상)는 30일 국고 보조금 지원자격이 없는 업체에게 국비 수 십억원을 지급한 나주시청 유모(58) 자치행정국장 등 공무원 4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결과 유씨 등은 지난 2004년 5월~2005년 2월 사이 N회계영농조합 대표 서모(46·2006년 구속)씨가 회계장비 조성을 위한 국고

**쓸수록 돈 버는 냉·난방기 부담 없이 구입하세요**  
600평 공장의 난방비를 8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절감한 신 기술

**냉·난방기 1/3로 줄었다**  
미국특허, 6단계 히트펌프로 템피아 유지비는 1/3입니다. 1/3기술은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미국특허는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냉·난방 에어컨 템피아가 만든 세계 최초 6단계 히트펌프 시스템으로 유지비 절감은 물론 시원한 냉방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한정수량 예약판매 무상 지원금 혜택**  
46만원~200만원까지 무상지원  
한국전력에서 원격제어 냉·난방기를 무상 지원해 드립니다. (일부품목 한정)

10평형~160평형까지 **항공가습기 공기청정기**

**에어컨 특별할인 판매 실시**  
스탠드형 냉·난방 에어컨(15평~160평형) 백열이형 에어컨 (10, 13평형)

공기과학 냉·난방에어컨 **TEMPIA**  
062)955-4222, 080-701-7117

**이태리가구 전문점**  
The 100% Made In Italy

**이태리 디바니 DIVANI 소파를 독점수입 판매합니다.**

- 등받이 각도 조절.바닥부분 리모콘으로 침대기능
- 4가지 모델과 이태리만의 칼라 30% 세일 판매
- 홍스페이스는 호남 유일의 이태리가구 직수입 전문점 입니다.

● 1.2층 : 명품가구 ● 3~5층 : 엔틱가구 ● 지하 : 50% 세일가구

www.hongspace.kr  
www.hongspace.kr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구도청앞) **홍스페이스 빌딩** 062)226-7567